

‘국문학’과 조선문학이라는 제도의 사이에서

- ‘국문학자’로서 서두수의 학문적 동일성을 중심으로 -

박광현*

|| 차례 ||

- I. ‘국문학’ 제도의 이식과 조선인 ‘국문학도’
- II. ‘국문학’과 ‘조선문학’의 사이에 서다
- III. ‘국문학자’라는 발화 위치
- IV. 결론을 대신하여

【국문초록】

이 논문에서는 조선문학과 ‘국문학’의 제도 사이를 오가며 자신의 학문적 동일성을 탐색했던 서두수의 모습을 논하였다. 그리고 그가 식민지시기 ‘국문학’이라는 제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던 의식 때문에 그 정치적 자장에 누구보다 깊이 감염된 실천을 행할 수밖에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는 조선인 최초의 ‘국문학도’로 학문의 길에 들어서서 조선어문학회 회원으로, 그리고 ‘국어’ 교사와 ‘국문학’ 교수로 자신의 학문적 동일성을 획득해갔다. 즉, 그는 식민지민으로서 ‘국문학’=지배자의 ‘국가학’을 한다는 학문적 주체와 대상의 불일치라는 모순의 구속으로부터 항시 자유롭지 못한 채 학문을 수행해야 하는 고통을 경험했다. 그런 그가 해방 직후 국문학=한국문학 교수로 바로 변신할 수 있었던 것은 한편으로는 식민지시기 조선인이 ‘국문학’=일본문학을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거꾸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물론 조선의 해방이 그에게 ‘국문학’ 전공자라는 제도적 구속으로부터 쉽게 벗어날 수 있게 했던 것은 아니다. 서두수는 해방 직후 연희전문을 거쳐 서울대에서 국문학=한국문학 교수로 재직 중이던 1949년에 컬럼비아대학으로 유학을 떠난다. 그것은 ‘국문학’=일본문학 전공자라는 자기 구속과 조선이라는 장소가 갖는 구속성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자 했던 선택이기도 했다고 할 수

*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서두수, 경성제국대학, 국문학, 조선문학, 학문적 동일성

I. ‘국문학’ 제도의 이식과 조선인 ‘국문학도’

1926년에 식민지 대학으로서 경성제국대학(이하, 경성제대)이 개교한다. 그리고 이후 이 대학은 식민지 조선 유일의 대학으로서 존재한다. 개교 당시부터 식민지 권력은 이 대학을 “동양연구의 메카”니 “조선 그 자체의 연구”를 위한 “특종(特種)의 학부”니 하는 온갖 수사를 통해 식민지 최대의 문화사업 중 하나로서 정치 선전에 동원하였다. 이 대학은 법문학부와 의학부의 2개 학부로 출발했는데, 그 중 법문학부란 ‘내지’의 기존 제국대학에 있는 법학부와 문학부를 통합한 경성제대 특유의 학부 형식이었다. 더구나 그것은 법학부와 문학부의 단순한 결합이 아니었다. 예과의 문과A반 학생들이 주로 진학하는 법학 계열에는 법학은 물론 경제학, 정치학 등 사회과학 계열의 ‘강좌’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문학부라는 명칭과 개념은 도쿄(東京)제대를 기준(1928년)으로 보면 법학부, 문학부, 경제학부의 3개 학부를 축소해 조선에 이식한 식민지형의 변형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경성제대가 식민지의 제국대학이라는 새로운 실험인 데다, 특히 법문학부는 ‘내지’에서는 아직 경험하지 않은 새로운 실험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 채용이나 학부 운영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야기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한 법문학부에는 1926년 당시 23개의 강좌가 개설되었는데, 그 중 문학과에는 ‘조선어학조선문학’(이하, ‘조선문학’) 제1강좌, 제2강좌를 비롯해, ‘국어학국문학’(이하, ‘국문학’), ‘지나어학지나문학’(이하, ‘지나문학’), ‘외국어학외국문학’

학’(이하, ‘외국문학’)이 각각 한 강좌씩 총 5강좌가 속했다.

‘조선어학조선문학’(이하 ‘조선문학’) 강좌는 다카하시 도오루(高橋亨)와 오구라 신페이(小倉進平)가 각각 담당하였다. 이 두 사람은 조선사학 제2강좌를 담당한 오다 쇼고(小田省吾)와 더불어 경성제대 교수들 중에서 식민지식 관료출신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그리고 ‘국어학국문학’(이하, ‘국문학’) 강좌는 일본의 ‘국문학사’가 최초로 ‘외지’로의 ‘진출’을 실험한 학과였다. 그로써 중등교육의 교육과목으로서 ‘국어=일본어’가 아닌 학문(연구)으로서 ‘국문학’이라는 제도가 조선에 성립한 것이다. ‘국문학’ 강좌는 처음에는 도쿄제대 국문학과 출신 다카기 이치노스케(高木市之助)가 담당한 한 강좌만이 개설되어 ‘조선문학’ 강좌에 비해 비교적 왜소하게 출발하였다. 그러나 ‘국사학’ 강좌와 함께 ‘국민의식과 국민확장’이라는 ‘내지연장주의’ 이념을 대표하는 ‘국가학’답게 점차 그 규모를 확대해 갔다.

다카기는 부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국어학’은 ‘국문학’과 전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별개로 개설되어야 한다고 교수회의에서 제안하였다. 그의 제안은 받아들여졌고, 당시 도쿄제대 국어학 담당 교수 하시모토 신키치(橋本進吉)의 추천으로 1928년에 제2강좌의 담당교수로 도키에다 모토키(時枝誠記)가 부임하였다. 그리고 1930년에는 오카야마(岡山) 6교에 재직 중이던 아소 이소지(麻生磯次)가 부임하여 실질상 제3강좌나 다름없는 ‘국문학 강좌’를 담당하는데, 그는 경성제대의 부임 이전에 1921년부터 2년간 조선총독부 학무국의 편집과에서 편수서기를 지낸 바 있는 인물이다. 다카기가 퇴임하는 1939년에는 아소가 제1강좌로 옮기고, 그 자리에 오기 와라 아사오(荻原淺男)가 새롭게 부임하는 등 줄곧 3강좌 체제가 거의 패전까지 유지되었다.¹⁾

1) ‘조선문학’ 강좌는 오구라 신페이와 다카하시 도오루의 제1강좌와 제2강좌로 시작하였다. 그러나 오구라는 1933년 동경제대 언어학과 교수로 이임한 후 경성제대에서는 겸임교수로서 방학을 이용한 집중강의만을 하였다. 1939년에 다카하시가 정년 퇴임하

이 식민지 대학이 1886년 개교한 제국대학(1897년 교토제대가 개교할 때까지 유일한 대학의 명칭이기도 했다)이라는 최고학부의 형식으로 개교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개교 이후 식민자들의 입학률이 70% 내외를 줄곧 유지했었던 점을 생각하면 ‘국문학’ 강좌의 개설은 어찌 보면 당위적인 것이었는지 모른다.²⁾ 그러나 경성제대가 여섯 번째로 세워진 제국대학이었지만,³⁾ 법문학부의 형식 자체가 말해주듯이 동서의 두 제국대학 즉 도쿄제대와 교토제대 이외에는 법학부나 문학부 등이 없었던 점을 생각할 때 그런 단순한 이유로만 설명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그보다는 경성제대가 식민지 제국대학이라는 맥락과 ‘국가학’의 지위를 지닌 ‘국문학’이라는 성격의 차원에서 설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경성제대 ‘국문학’ 강좌는 최초로 ‘외지’로 ‘진출’한 ‘국문학’이라는 의미에서 제국일본내의 다른 어떤 아카데미즘(제국대학)의 ‘국문학’ 강좌와도 변별되는 새로운 것이었다.⁴⁾

그런 경성제대에서 조선인이 ‘국문학’을 전공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국문학’ 전공의 조선인은 서두수와 최성희 단 두 사람에 불과했다. 더구나 최성희는 법학 전공으로 옮겨 1938년에 법학으로 복수학위를 취득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서두수가 졸업 후 전공자로서 유일하게 활동한

면서 빈자리마저도 김태준(‘지나어학지나문학’ 2회 졸업생)을 (조)교수가 아닌 강사로 채용할 정도로 ‘조선문학’ 강좌는 교원 층원면에서 ‘국문학’ 강좌에 비해 철저하게 소외되었다. 이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박광현의 논문 『식민지 조선에 대한 ‘국문학’의 이식과 다카기 이치노스케(高木市之助)』(『日本學報』제59집, 2004. 6) 참조.

- 2) 여러 회고들을 통해 당시 입학생 중에는 조선 현지 일본인뿐만 아니라 내지 출신의 입학생이 다수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3) 동경제국대학(1887년)을 시작으로 京都(1897년), 東北(1907년), 九州(1910년), 北海道(1918년)에 이어 여섯 번째로 세워진 제국대학이며, 일본 제국이 식민지에 세운 최초의 제국대학이었다. 그 뒤 臺北(1928년), 大阪(1931년), 名古屋(1939년)에 세워졌다.
- 4) 주1)에서 언급한 논문에서 필자는 경성제대 ‘국문학’ 강좌의 첫 교수로 부임한 다카기 이치노스케를 분석하면서 조선에 대한 ‘국문학’ 이식의 성격과 그의 역할에 대해 논하고 있다.

인물이라고 하겠다.⁵⁾ 즉, 그는 1941년까지 76명의 졸업생이 배출한 ‘국문학’ 전공자 중에서 거의 유일한 ‘국문학’을 전공한 조선인이었다.⁶⁾ 당시 ‘국문학’이 국가학으로서의 지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인에게는 모어가 아닌 언어로 형상화된 텍스트를 연구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커다란 장벽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그런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는 인식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아무리 ‘국가학’의 중추로서 제도상으로는 외국문학일 수 없을지언

5) 최성희는 7회 졸업생(1936년)인데, 졸업논문으로 『近世怪異小説研究』를 제출했다. 하지만 그는 법학을 취득한 후 문학에 관련된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식민지시기에 특히 경성제대 출신자들에게 있어 조선문학 연구가 ‘국문학’이라는 제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직접적으로 ‘국문학’이라는 제도의 수혜를 받은 유일한 인물에 가까운 서두수의 연구는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 연구가 거의 없었다. 김영심이 식민지 조선에서 源氏物語가 어떻게 교육되었는지를 살피면서 ‘학생들의 源氏物語觀’에 대해 살피는 과정에서 서두수를 언급한 바 있다. (『식민지조선에 있어서의 源氏物語-경성제국대학의 교육실태와 수용양상』, 『일본연구』, 2003.12.) 그리고 최근 서은주가 ‘식민지 문학의 내면’과 일본 문학 담론의 관계를 탐구하면서 ‘일본문학의 자기화’의 한 양상 혹은 예로서 서두수에 관해 고찰한 바 있다. 그렇게 볼 때 서두수에 관한 논의는 서은주가 본격적으로 다루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글에서는 조선문인들의 ‘국문학’=일본문학과 의 관계를 ①거리두기, ②‘국민문학’ 과제에의 편입, ③‘자기화’로 전개되는 근대문학사적인 단순 맥락 속에서 그 중 ③‘자기화’의 한 예로 서두수를 읽고 있다. 하지만 오히려 서두수는 당시 ‘국문학’=일본문학을 제도적으로는 자기화해 인식할 수밖에 없는 공간, 즉 경성제대에서 수학했을 뿐만 아니라, 더구나 그는 경성제대에서 거의 유일하게 ‘국문학’=일본문학을 전공한 예외적 인물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논의를 진전시켜야 한다고 생각된다. 왜냐 하면 그럼으로써 그의 ‘국문학’=일본문학에 대한 언표들 속에서 ‘국문학’=일본문학과 조선문학 사이의 균열적 인식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문학의 언표화와 식민지 문학의 내면』, 『상허학보』, 2008. 2. 참조)

6) 서두수의 졸업논문은 그 제목조차 아직 확인할 수 없다. 단지, 『신흥』에 실린 그의 글을 통해 짐작할 수밖에 없을 뿐이다. 심사위원의 지적처럼 그의 졸업논문은 그가 ‘국문학자’로서의 자기동일성을 획득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 생각하나 이 글에서는 추론의 방식으로만 그 내용을 밝혀둔다. 1929년부터 1941년까지의 ‘국문학’ 전공의 졸업생 수의 추이를 보면 이렇다. 2명(1929년)-4명(1930년)-4명(1931년)-8명(1932년)-6명(1933년)-5명(1934년)-10명(1935년)-8명(1936년)-10명(1937년)-8명(1938년)-3명(1939년)-5명(1940년)-3명(1941년).

정 조선인 개인들에게는 외국문학이나 다름없기 마련이다. 그러한 현상은 ‘조선문학’ 전공자의 분포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즉, ‘조선문학’ 전공자를 보면 1941년까지 졸업자가 22명 배출되었는데, 그 중 일본인은 1937년(요 시카와 만주오, 吉川万壽雄)과 1939년(고야 가즈야, 幸谷一也)에 각각 한 명씩만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의 전체 위에 서두수의 ‘국문학’ 전공 선택의 의미를 찾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모어가 조선어인 조선인으로서 ‘국문학’을 전공한다는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 안에는 식민통치 언어 즉 국어로 질서화된 미학이나 정신의 세계를 분석해야 하는 피지배자의 모순 자체가 함의되어 있다. 또한 ‘국문학’ 전공자로서의 그의 문학 활동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하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것을 통해 조선인=조선어=조선문학 對 국민=국어=국문학이라는 이항대립으로 상상될 만한 모순이 항수로서 존재했던 식민지 상황에서 어찌면 조선문학과 국문학 사이의 의외의 관계를 발견할 수 있을지 모른다. 식민지 조선에서는 안확의 『조선문학사』 이후 적어도 국문학(사)의 권력에 대해서 조선문학(사)이 잠재적 국문학(사)으로서의 위치에 항시 존재했다. 이 글에서는 그런 사실들을 흔히 이제까지 있어 왔던 조선문학 연구자들로부터 탐구하는 방법이 아니라, 조선인이면서 국문학자가 되려고 했던 인물 서두수를 통해서 탐구하고자 한다.

그럼 우선 서두수가 조선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국문학’ 전공을 선택할 수 있었는지를 짚어보도록 하자. 경성제대 예과의 입시는 『源氏物語』, 『枕草子』, 『方丈記』 등 일본의 고전에서 추출한 내용을 현대역으로 옮기는 문제 즉, ‘국문해석’ 능력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사회는 “조선인 학생더러 일본인 학생과 동일한 조건하에서 해석하라는 것은 무리일뿐더러 조롱”⁷⁾이라고 반발하기까지 했다. 그 사실을 거꾸로 짚어

7) 『동아일보』, 1925년 1월 9일자 사설.

본다면, 예과에 합격한 조선인이라면 이미 일본 고전을 일본인만큼 해석할 수 있는 ‘국문해석’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예과의 교과 내용을 통해서도 당시 학생들의 고전해석 능력을 짐작할 수 있다. 예과에는 道義科, 古典科, 歷史科, 經國科, 哲理科, 外國語科, 體練科가 있었는데, 『경성제국대학예과일람』의 고전과 해설과 교수요령을 보면 이렇다.

古典으로서의 國書漢籍을 修得시키고 醇正한 국어의 이해와 발전 능력을 키우고 國體의 본의를 明微하게 하며 국민정신의 神髓를 감득시켜 皇國의 전통을 護持하고 그 발전에 기여케 함을 요지로 한다.

1. 國書에 대해서는 고전의 정신과 표현을 이해시켜 皇國발전의 근기를 배양할 것. 국어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해 및 발전 능력을 키우고 국어가 국민의 사고감동을 구현하고 동시에 형성한다는 사실을 이해시켜 국어를 존중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며 투철하게 순정한 국어생활을 하도록 할 것.

교수요령

1. 강독(약265시간) 제1학년 및 제2학년

(1) 필수 교재

古事記, 萬葉集, 論語

(2) 선택교재

歷代御製, 日本書紀, 古語拾遺, 古風土記, 延喜式祝辭, 續日本記宣命, 古今和歌集, 源氏物語, 大鏡, 平家物語, 新古今和歌集, 神皇正統記, 太平記, 新葉和歌集, 謠曲, 芭蕉·蕪村의 作品, 國學者·勤皇志士의 述作, 歌論, 俳論, 能樂論 등⁸⁾

서두수는 1925년 경성제대 예과 2회생으로 입학하여 문과B반에서 수학한다. 서두수와 함께 문과B반에서 수학했던 조선인 동기들을 보면 이희승, 고유섭, 윤용균, 성낙서, 김용환 등 18명이 있다. 이들 문과B반은 통상 문

8) 김영심, 앞의 글, 32-33쪽 재인용.

학, 사학, 철학 전공의 본과에 입학했는데, 하지만 2회 입학 동기 중 4명이 법학과로 진학했던 것처럼 조선인들에게는 법학 쪽의 인기가 높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 중에서도 아주 예외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영문학을 전공한 이효석처럼 문과A반에서 수학하다 문학과로 진학하는 경우도 있었다. 위의 예문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은 고사기와 만엽집 등 필수 교재를 비롯해 역사, 가요, 예능 등에 속하는 광범위한 일본 고전에 대해 265시간이나 되는 시간을 교육받았다. 이 정도의 교육 내용이라면 이는 단순히 “국어론 존중하는 마음”이나 “순정한 국어생활”을 위한 정도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국어’=일본어로 교수받고 연구하는 본과생을 만들어내기 위한 수준에 충분한 것이었다.

서두수가 졸업하는 1930년 현재 본과의 졸업 기준으로 문학과 동기들을 전공별로 나눠보면 아래와 같다.

- 國文學: 서두수(경북), 今淵武壽(福岡), 岩坪巖(鹿兒島), 須藤兪雄(長野)⁹⁾
- 조선문학: 이회승(경기)
- 지나문학: 戶次高麗生(大分)
- 영문학: 김영준(경북), 김용환(충남), 이효석(강원), 岩山勝(宮城), 津崎逸郎(熊本), 寺本喜一(京都), 諸留寬(東京), 森永龍之彌(山口)

9) 今淵武壽는 졸업과 동시에 경성제일고등여학교에서 교편을 잡다가 이후 경성중학교로 옮겨 교편을 잡았고, 岩坪巖는 평양상업학교와 평양제일중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그리고 須藤兪雄는 서두수와 함께 졸업 후 경성제대의 조수로 있다가 명륜학원의 강사를 거쳐 경성제대 예과 교수가 되었던 인물이다. 경성제대 국문학 졸업자들의 진로는 대개 공립학교의 국어과 쪽이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須藤兪雄는 『文教の朝鮮』(1940년 7월)에 『日本文學の精神』을 제재한다.

1927년에 입학한 ‘국문학’ 전공의 동기생은 서두수를 포함해 모두 4명이었다. 주9)에서 밝혔듯이, 이들 중 이마부치 다케히사(今淵武壽)와 이와쓰보 이와오(岩坪巖)가 졸업 직후 공립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는데, 서두수도 조수를 마치고는 1934년부터 진남포상공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¹⁰⁾ 하지만 확인할 수 없는 궁금한 점은 진남포상공학교에서 그가 담당한 교과목이 무엇이었고, 또 ‘內鮮共學’인 이 학교에서 과연 교수언어가 무엇이었겠는가 하는 것이다. 다분히 국어=일본어과였을 가능성이 높는데, 그렇다면 교수언어도 국어였을 것이다.

경성제대의 교수 언어 혹은 학술 언어는 당연하게 국어였다. 하지만 ‘조선문학’ 전공자만은 예외로 조선어를 사용해 졸업논문을 쓸 수 있었다. 물론 서두수는 전공이 ‘국문학’이었기 때문에 ‘국어’=일본어로 작성했다. 그가 본과 졸업반이자 첫 졸업생이 배출되었던 1929년에는 조선인 학생들 사이에서 흥미로운 움직임이 생긴다. 그것은 다름 아닌 『新興』이라는 잡지의 창간이었다. 이들은 자신들을 ‘동지’라고 부르고 창간호부터 경성제대라는 아카데미즘의 세례를 받은 자신들의 ‘과학적’ 시선을 통해 조선을 바라보고 분석하려 했다.¹¹⁾ 배상하, 유진오, 조윤제 등 첫 졸업생들이 중심이

10) 진남포상공학교(현 김책공대의 전신)는 식민지 시대에 평남지역의 명문 중 하나였다. 朝鮮總督府官報(1919.6.9)에서 밝히는 地方費豫算概要에 따르면 1919년 지방 예산으로 京畿道에 開城商業學校, 咸鏡南道에 咸興簡易商業學校를 新設하면서 이 학교는 확대되었다. 또한 1932년 9월에는 이 학교의 尹相南과 李基浩이 주도하여 反帝班 조직이 결성된 것이 식민지 경찰 당국에 의해 크게 사건화된 바 있다.(『高等警察報』2, 23쪽.) 이 사건의 공판은 이듬해부터 시작되어 조선 언론에 크게 보도된다. 서두수는 이 사건 이후에 부임한 것으로 짐작된다.

11) 조선어 학술과 일본어 학술이 경쟁하고 공존하는 조선 학술지형의 현실에 대응하는 『신흥』 동인들의 모습은 양면성을 띠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신흥’의 그들은 경성제대(아카데미즘)라는 제도의 정치적 세례를 받았다는 동질성에 근거해 내부적으로 정치성의 차이로 인한 갈등을 표면화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 사이에 내재하고 있는 갈등 요소가 1930년 중반 이후 ‘조선학’계의 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방법론 혹은 이념상의 분기화 과정 안에서 재현되었던 사실은, 역으로 그들이 『신흥』을 통해 보여준

되어 모여 창간한 잡지 『신흥』에서부터 서두수의 글이 확인된다. 서두수는 1930년 제3호에 「悲劇考察隻片」를 발표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에서 비극에 관해 논한 명제로부터 출발하는 이 글은 “모방적 묘사”에 관해 주로 다루고 있다. 이 글이 논의 전개상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내지(內地)의 학계였다. 특히 Johannes Volkelt의 저서 *Aesthetik des Tragischen*를 번역한 가네다 렌(金田廉)의 『悲劇美의美學』(大村書店, 1925)에 전적으로 의존하면서,¹²⁾ 竹友藻風의 『文學論』(アルス, 1926)나 니제키 료조(新關良三)의 「アリストテレスの悲劇論」(『希臘悲劇論』, 岩波書店, 1925)을 참조하고 있다. 국문학 전공자로서 왜 아리스토텔레스의 비극을 테마로 발표했는지는 그 다음 연재물에서 밝혀진다.

서두수가 『신흥』에 다음으로 발표하는 글은 「他山錄-悲劇의脚色과性格-」(4호)과 「他山錄(二)」(5호)이다. 이 글의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글은 「悲劇考察隻片」의 연장선에서 씌어진 글이다. 그런데 ‘他山錄’이라는 제목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그 의도는 “이에실음은오직他山之石일것이다. 英國의 S.H. Butcher의 *Aristotle's Theory of Poetry and fine Art* (1923)에서 몇句式나 의理解된대로곳쳐보련다.”¹³⁾라고 부기한 내용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S.H. Butcher의 글이 무엇을 위한 타산지석이 되길 바랐던 것일까. 그럼 잠시 「他山錄(二)」의 일부를 인용해보자.

이에우리는亞民(氏의 오식-인용자)와함께脚色行動은脚의藝術的構造의

경성제대 출신자라는 존재와 의식상의 자기동일성이 얼마나 분명했단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신흥』의 성격과 그 동인들의 자기동일성에 관한 자세한 분석은 박광현의 「경성제대와 『신興』」, 『한국문학연구』26집, 2003. 참조.

12) 이 글의 마지막에 “時間의餘裕를엇지못하여, 去頭截尾의그것이되고말었다. 하느수 없시大體로 Volkelt 翻譯한, 金田廉氏의『悲劇美의美學』에만흔힘을입었다.”고 부기하고 있다. (서두수, 「悲劇考察隻片」, 『신興』3호, 1930. 7. 113쪽.)

13) 杜漱, 「他山錄-悲劇의脚色과性格-」, 『신興』4호, 1931. 1. 135쪽.

第一要素임을主張안하면아니된다. 그러나이것은亞民(氏의 오식-인용자)는 가볍게獨過하였스나이이것도또한다른側面은낮하네고있다. 이것은한層더顯明하게되여야한다簡單히말하면그것은이러하다. 卽性格에서소사나와性格을反映하는行動만이한層더높은劇的條件을滿足 식힌다. 이에敍事詩와劇詩間에顯著한差異가 있다.¹⁴⁾

위의 인용문 안에는 그의 국문학 전공자로서의 면모가 숨겨져 있다. 『他山錄』 자체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비극의 여섯 요소 중 ‘각색(Mythos)’과 ethos, 그리고 dianoa를 ‘약간’ 설명한 글에 불과하다. 하지만 위의 인용문에서 서사시를 언급한 데는, “敍事詩는人間의運命, 人類의宿命에屬하는, 크고完全한行動을敍述하여한때동안의人生을짜네는것”이라고 주장하는 그의 스승인 다카기 이치노스케(高木市之助)의 영향이 작용한 때문이다. 다카기는 일본에 있어 ‘서사문학의 빈곤’에 착안하여 헤케모노가타리(平家物語)를 서사문학으로 규정하고, 졸업논문으로 『서사시로 본 헤케모노가타리(敍事詩として觀たる平家物語)』를 발표한 바 있다. 그 경험은 이후 ‘서사시에의 꿈’을 품고 ‘古代編曆’ 즉 고사기와 일본서기, 그리고 만엽집 연구를 시작하여 ‘국문학오십년’의 산 역사가 되는 출발점이었던 것이다.¹⁵⁾ 그는 그러한 소중한 경험을 경성제대의 제자들에게 들려주었으리라 짐작된다. S.H. Butcher의 글이 무엇을 위한 타산지석이 되길 바랐는가라는 앞의 질문에 자답하자면, 이 글은 ‘국문학’의 서사시에 관해 논의하는 데 있어 Butcher의 비극 혹은 극시를 타산지석으로 삼으려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연재의 성격을 지닌 이 글들은 더욱 서두수의 졸업논문과 얼마나 관계있는지 엄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14) 杜漱, 『他山錄(二)』, 『新興』5호, 1931. 7. 106쪽.

15) 高木市之助의 두 회고록 『國文學五十年』(岩波新書, 1967년. 65쪽-71쪽)과 『尋常小學國語讀本』(中公新書, 1976년. 29쪽-36쪽) 참조.

II. ‘국문학’과 ‘조선문학’의 사이에 서다

잡지 『신흥』은 일본에 의해 ‘조선 그 자체의 연구’를 위해 ‘특종의 학부’로서 설립된 경성제대 법문학부의 출신자와 재학생이 그 제도상의 학술적 경험을 재현(Representation)한 종합지이다.¹⁶⁾ 특히 『신흥』은 창간호에서 ‘사회과학’과 ‘철학’의 편집항목과 더불어 ‘조선문제’ 항목을 두었는데, 조운제, 김창균, 신석호와 같이 문학과와 사학과 출신자들은 이 항목을 통해 주로 발표했다. 특히, 조운제는 「향토예술부흥운동」(2호)에서 이렇게 적고 있다. “社會主義를부르지지고, ××主義를宣傳하는것이, 二十世紀青年의氣象이며, 붓을들면은「판데」를부르고, 섹스피어를붙이고, 「칸트」를찾는것이, 文學家답고, 學者답을지는모른다. 그러나朝鮮을妄覺한運動, 朝鮮을妄覺한學問의意義는어데잇는고, 우리는늘目標를朝鮮에두고, 外國의文化를輸入하여, 自國文化를發達向上식히는동시에, 쉬지안는努力을가지고, 自國文化를研究하지안으면안이될것이다.”¹⁷⁾ 이렇게 조운제가 ‘향토’를 키워드로 『신흥』의 ‘사회과학’과 ‘철학’의 논자들과 일정한 대립각을 세웠는데, 이재욱나 김재철이 ‘향토’라는 용어로 민요나 산대놀이를 분석하는 것도 그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은 ‘사회과학’에서는 유물론과 사회주의를, ‘철학’에서는 신칸트파와 헤겔 철학의 논문이 다수를 차지했던 『신흥』 전반의 분위기를 대상으로 한 비판일 수도 있다. 거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물론 조운제를 비롯해 이희승, 김재철, 이재욱, 이승녕, 방중현 등 조선문학 전공자들이었다. 조운제가 영남지역의 부녀가사를 언급한 글에서, “其界의學者는모름즉이마음을습하여 힘을습하여 그를蒐集하여永久의保存을 힘쓸것”¹⁸⁾이라 했는데, 바로 그 모임이 조선어문학

16) 박광현, 「경성제대와 『新興』」, 『한국문학연구』26집, 2003. 247쪽.

17) 趙潤濟, 「郷土芸術復興運動」, 『新興』2호, 1929. 12. 103쪽.

18) 趙潤濟, 「嶺南女性과그文學」, 『新興』6호, 1931. 12. 72쪽.

회였던 것이다. 이 학회는 1931년 7월에 『조선어문학회보』라는 제호의 학술지를 간행하기 시작했는데, 이들 조선어문학의 전공자 외에 ‘지나문학’ 전공의 김태준과 ‘국문학’ 전공의 서두수가 거기에 참가했다.¹⁹⁾

특히 『신흥』의 필자들이 “경성제대 법문학부 졸업의 신예제군”이라고 자신들의 위치를 밝히고,²⁰⁾ 조선의 “유일의 학술잡지 『신흥』”²¹⁾을 표방했던 것처럼, 이 학회는 “朝鮮語學及朝鮮文學的科學的研究”라는 취지하에 모인 동인의 조직임을 강조하고 “朝鮮語文學界에獻身하자”고 학회지를 발간한다고 밝히고 있다.²²⁾ 이승녕은 조선어문학회를 두고 이렇게 회고한다. “우리 선후배 사이에 굳게 맺어진 한 신념은 ‘民族文化의 개척자’로서 일생을 바친다는 것이었다. …중략… 당시로는 우리가 ‘새 世代’라 우리가 아니면 語文學이 부흥할 수 없는 것으로 자처했다. 잡지에 나오는 기성학자의 論文을 보고 비판할 때의 기백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었다.”²³⁾ 그러면서 “육당의 『不咸文化論』이라도 이 文化的 特攻隊(?) 앞에는 남아날 리가 없었다.”²⁴⁾고 하여, 이처럼 ‘새 세대’니 ‘문화의 특공대’니 하는 수사로 기성학자들과 자신들을 차별화해서 기억하고 있다.

그들은 ‘국어=일본어’가 학술언어로 ‘상용’되었던 경성제대에서 수학하면서 ‘조선어문학’ 연구자라는 자기동일성에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이든

19) 이회승의 기억에 따르면 김재철과 이재욱이 입학한 후에 조선어문학회를 만들어 곧 잡지를 발간했고, 자신을 포함해 4명이 “주머니를 털어 경비를” 조달하고 거기에 글을 발표했다고 한다. 그의 기억이 정확하다면 1928년 중에 이 학회를 조직한 것이 되지만, 학회지의 발간은 1931년 7월부터였으니 학회지 발간은 4명이 아니라 이승녕, 방종현이 입학 후에 이뤄졌으며 또 그들 외에 서두수와 김태준이 참가했다.(이회승, 『一石李熙昇全集9』, 서울대출판부, 2000, 53쪽.)

20) 『新興』2호, 1929. 12, 114-115쪽.

21) 『編輯後記』, 『新興』5호.

22) 조선어문학회, 『本會事業一端』, 『朝鮮語文學會報』4권, 1932. 4. 23쪽.

23) 이승녕, 『大學街의 把守兵』, 민중서관, 1968. 25쪽.

24) 앞의 글, 26쪽.

오히려 ‘국어=일본어’를 상대화해 조선어를 정의하려는 자의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1	2	3
大學	따-쉐	대학	아이까구
京城	징청	경성	게이쵸-
禮拜	리바이	예배	라이하이

1은 中國語요, 2는 朝鮮語요, 3은 日語다. 勿論 이와같은類似的는 朝鮮語와 日語에는 漢字輸入으로因하여 漢字起源의 말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그 漢字起源의말은 日本서는日本語化되고 朝鮮서는朝鮮語化되었으니²⁵⁾

위에서 예로 든 것은 김재철의 『朝鮮語化와 朝鮮語』라는 글이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도 상식적이지만, ‘국어=일본어’를 학술언어로 상용하던 상황에서 그것을 ‘일어’ 혹은 ‘일본어’로 상대화하는 자연스러움과 어색함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은 그의 경성제대 출신 ‘조선어문학’자라는 자기동일성 때문일 것이다.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고토다마(言靈)’로서 ‘국어’의 정신을 익혀야 했던 ‘국문학’ 전공자로서 서두수가 그러한 공간에 참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그럼 우선 서두수가 『조선어문학회보』에서 어떤 글을 발표하고 활동했는지부터 보자.

서두수가 2호(1931. 10)에 발표한 『數노름』은 한중일의 ‘숫자놀이’ 동요를 독특한 방법으로 소개한 것이다. “아이 달도밝지! 秋夕달은 어엿부기도해! 自然童心이憧憧이로구”²⁶⁾로 시작하는 이 글은 “내 어렸슬때 安東따에서” 살았을 적 들었다는 조선의 ‘숫자놀이’ 동요를 먼저 소개하는데, 이

25) 김재철, 『朝鮮語化와 朝鮮語』, 『朝鮮語文學會報』5권, 1932.9. 7쪽.

26) 서두수, 『數노름』, 『朝鮮語文學會報』2권, 1931.10. 9쪽.

렇듯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서울童’, ‘川童’, ‘順姬’, ‘吉童’, ‘清童’, ‘太郎’ 등의 인물을 등장시켜 대화체로 한중일 삼국의 것을 소개하고 있다. 그 중 가장 길게 소개되는 것은 일본의 『おつきさまいくつ』라는 숫자 넣어 부른 류큐(琉球)의 달노래였다.²⁷⁾ 그 노랫말도 일본어 그대로 인용되었다. 그 다음은 서두수가 “暫間식골갓든길에” 안동의 ‘吳夫人’에게서 채록한 ‘웃頰’을 3호와 4호에 연재한다. ‘뒷송-갯송(이상, 3호에 게재)-결송-웃송-못송(이상, 4호에 게재)’로 이어지는 이 노래는 “될수있는대로 筆者의손을대이지않고싶었다”²⁸⁾는 채록 자료로서의 가치에 의미를 둔 것이었다. 그리고 5호에는 『隻語錄(一)』을 발표하는데, 그것은 ‘드라마’를 표제로 괴테를 비롯한 서양 문학가들의 극에 관한 정의나 발언을 모은 글이었다. 그 내용은 아리스토텔레스를 중심으로 해서 서양극에 관해 쓴 『신흥』에 발표한 글과도 관련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 글은 “時間과 努力이許容하는대로 外國書籍에서隻語나마 理解하여” 보겠다며 연재를 기획하고 쓴 것인 듯하나 그 후속은 발표되지 않았다.

조선어문학회에 참가하면서 서두수가 먼저 민요 채록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당시 조윤제, 이재욱, 김재철 등이 보여주었던 ‘말’의 문학에 대한 관심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여겨진다. ‘조선문학’ 강좌의 교수였던 다카하시 도오루가 ‘조선문학’자료의 자기동일성을 획득해가는 과정에서 ‘민요’는 중요한 장르였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문학’ 강좌가 거국적으로 민요 채록에 나서기도 했다.²⁹⁾ 따라서 그의 민요 채록은 그러한 맥락과 무관하지 않다

27) 서두수가 발표한 얼마 후 김태준은 『朝鮮歌謠의 數노름』(『東光』 제29호, 1931. 12)을 발표하면서 이 글을 인용하고 있다.

28) 서두수, 『웃송』, 『朝鮮語文學會報』3권, 1932.2. 11쪽.

29) 다카하시는 경성제대에 부임한 직후부터 조선의 민요를 수집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는 1932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조선문학 연구의 난관을 토로하며 이렇게 쓰고 있다. “내가 조선의 민요에 손을 댄 지 벌써 5년이 된다. 문헌의 수집도 아직 거의 진척이 없다. …<중략>…민요의 수집은 아마도 문학적 자료의 수집에 있어서 그 가장 곤란한

고 볼 수 있다.

그런 초기 활동과 달리 『故盧汀追悼號』로 출간된 6호에는 『方法論과文學史』라는 글을 통해 ‘방법’과 ‘개념’을 무시한 비평이나 문학사는 “武器를 빼앗기고 錯亂에 빠지고 있는 셈”이며, 또 “方法과概念에對하여 云謂하고 쉬히熱激되는사람이 許多”하나 그렇게 표현된 어구는 “不明白하고矛盾되는意味”를 가짐을 주장한다.³⁰⁾ 이 글에서 이제 조선에서도 문예학 혹은 문학사에 있어 방법론을 學的으로 운위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 글은 이탈리아의 베네데토 그로체(Benedetto Croce)를 전적으로 원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논문으로 볼 수 없는 글이었다. 그와 같은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서두수 자신이 조선문학을 대상으로 문학사를 거론할만한 지적 경험을 가지지 않았다는 필연적인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스승인 다카기 이치노스케가 그랬듯이, 조선에서 ‘국문학=일본문학’을 대상으로 연구활동을 갖는다는 것은 그렇게 녹록한 일이 아니었다. 다카기는 경성 생활에서 “공사의 잡무에 시달리면서 아무튼 책을 읽고 사고하는 생활의 혜택을 받은” 은혜로 자신이 “학계에 저야할 의무는 내가 경성에서 이렇게 책을 읽고 사고할 수 있었던 것을 이쯤해서 하나의 학문적인 작업으로 모아서 세상에 제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 『요시노노아유(吉野の鮎)』를 썼다고 밝히고 있다.³¹⁾

것 중 하나일 것이다.” 그러면서 “특히 우리와 같이 조선어의 어휘적 지식이 빈약한 자에게 무척 어려운 일”이라며 조선문학을 불가지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인식적 오류에 대해서 고백한다. 이것은 단지 조선민요연구의 어려움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조선문학 자체에 대한 자신의 연구에 있어 한계를 고백한 것이었다. 문헌 연구만으로 조선문학의 전체를 구성할 수 없음을 그 자신이 너무도 잘 알고 있던 터이다. 그래서 그의 조선민요에 대한 연구는 조선문학사를 구성하는 전체상을 그리기 위한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것은 ‘조선문학’ 강좌 담당교수로서의 책임이자 그 위치에서 행한 새로운 시도였다.(박광현, 『다카하시 도오루와 경성제대 ‘조선문학’ 강좌·‘조선문학’ 연구자로서의 자기동일화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문화』40, 2007. 12. 47쪽)

30) 서두수, 『方法論과文學史』, 『朝鮮語文學會報』6권, 1933.2. 41쪽.

‘기키만요고찰(記紀萬葉攷)’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이 책에는 모두 19편의 논문이 실렸는데, 그 중 경성 시절에 쓴 것이 15편이었다. 그러나 『日本文學研究』(『京城帝國大學文學會論纂』 제2집, 1935)에 실린 「고사기 개요에 있어서 가나(假名)의 통용에 관한 일시론(古事記歌謠における假名の通用について一試論)」 외에 모든 논문이 ‘내지’의 지면을 통해 발표된 것이었다.³²⁾ 정리하자면, 조선에서 다카기는 경성제대에서 발행한 논집 이외에 다른 발표 지면을 갖지 못했다. 반면, 일상에 관한 수상(隨想)은 『朝鮮』이나 『朝鮮及滿洲』, 그리고 『京城雜筆』 등에 발표하고 있다. 그것은 다카기만이 아니라 도키에다 모토키(時枝誠己)나 아소 이소지(麻生磯次) 등 ‘국문학’ 교수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였다.³³⁾ 이러한 조선이라는 장소의 상황에서 서두수는 ‘국문학’이라는 전공의 학문적 자기동일성을 드러낼 수 없으며, 그와 동시에 조선문학을 논하려고 집착하면 할수록 자신의 학문적 자기동일성이 상실되어가는 모순을 겪어야 하는 처지

31) 高木市之助, 『高木市之助全集1』, 講談社, 1977. 3쪽.

32) 그 밖의 논문들은 『文學』에 3편, 『國語國文』에 2편, 그리고 『國語と國文學』 『上代日本文學講座』 『國文學と日本精神』(藤村博士功績紀念會編) 『國文學 解釋と鑑賞』 『短歌研究』 『萬葉集講座』에 각각 한 편씩이 실린 것이었다. 그리고 『吉野の鮎』 안에 수록되어 있지 않으나 경성제대 시절에 쓴 논문으로서는 앞서 지적한 『民謡と文學-濟州島の民謡から』 외에 『山家鳥虫歌と近世民謡の一面』(京城帝國大學 편, 『日本文學叢考』-『京城帝大法文學會 第2部 論纂』-, 東京大阪屋弓書店, 1935)와 『朝鮮の國語教育について』(京城帝國大學 편, 『京城帝大創立10周年記念論文集 文學篇』, 東京大阪屋弓書店, 1936) 등 고작 세 편에 불과하다.

33) 특히 조선사편수회 위원과 경성제대의 사학, 문학, 철학 관련 강좌의 교수들이 중심이 되어 “조선 및 만주를 중심으로 하는 극동문화연구 및 보급을 목적으로 한” 연구단체 ‘청구학회(靑丘學會)’에도 다카기만이 1932년 8월부터 참가하지만, 학회지 『청구학총(靑丘學叢)』에는 단 한 편의 논문도 발표하지 않았다. 도키에다나 아소는 끝내 참가하지도 않았다. 조선사회 인문학의 전반에 걸쳐 학술활동을 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었던 것이 ‘청구학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사학’ 강좌와는 달리 ‘국문학’ 강좌는 참여하지 않았던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박광현의 「식민지 조선에 대한 ‘국문학’의 이식과 다카기 이치노스케(高木市之助)」, 『日本學報』 제59집, 2004. 6) 참조.

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다.

즉, 조선인이면서 ‘국문학’을 전공한 존재로서 그가 조선어문학회라는 공간에서 활동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제도적으로는 그렇지 않았다 할지언정 ‘외국문학’ 전공자로서 자신을 확인하는 결과에 이르는 과정이지 않았을까. 그에게는 그러한 모순이 조선어문학회 활동을 통해 내내 존재했는지 모른다. 그래서 조선어문학회보가 1933년 7월에 간행된 7호 이후 폐간되는 순간 그는 오히려 자유로워진 것이 아닐까. 1930년대 중반 이후 한동안 그의 글이 발견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해서 그는 1934년 진남포상공학교의 교유로 부임한 이후 ‘국어’과 교사라는 위치에 존재하면서 조선문학연구의 공간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이다.³⁴⁾

Ⅲ. ‘국문학자’라는 발화 위치

잡지 『삼천리』는 1941년에 조선 내 여자전문학교를 탐방 소개하는 연재를 기획하였는데, 그해 3월호에 첫 번째로 이화여전을 소개하였다.³⁵⁾

그리구 특기할 것은 朝鮮말이 없어지느니 어찌느니 하는 이때 당국에서 이번 새해부터 朝鮮語科를 특별히 허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朝鮮文學 國文學, 支那文學과 함께 중요한 과목이 되겠습니다. 이때까지두 동한시한

34) 김재철이 경성제대 졸업 후 평양사범학교에서 국어와 한문을 일주일에 18시간을 가르쳤을 당시 김태준에게 보낸 편지에서 “공부할 겨를도 없고 품삯도 적고 교수과목이 전공 이외이며 관료 분위기는 돌고 있고 여관에 오면 고적하고 友人도 없”다고 적고 있는데, 이러한 사정은 서두수도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짐작된다.(김태준, 『故蘆汀先生小傳』, 『노정기념첩』, 한성도서주식회사, 1938. 6쪽/이상우, 『한 식민지 국문학자가 마주친 ‘동양연구’의 길-김재철론-』 『인문연구』, 2007. 228쪽. 참조)

35) 다음호에는 숙명여자전문학교가 소개될 예정이었지만 이 기획은 시국 때문인지 1회에 그친다.

것은 아니죠, 古代文學 『龍飛御天歌』에서부터 李人植씨의 『鬼의 聲』에 이르기까지 꼭 배워왔습니다.³⁶⁾

위의 글은 당시 이화여전 학생청년회의 고문을 맡고 있던 이태준을 인터뷰한 내용의 일부이다. 이태준은 국문학과 지나문학에 이어 새롭게 조선문학이 정식 학과로 인정받았음을 자랑한다. 조선문학과 지나문학은 이태준이 담당했고 그때 국문학은 조선인 유일의 전공자 서두수가 담당했다.³⁷⁾ 서두수는 진남포상공학교의 ‘국어과’ 교사를 거쳐 이화여전의 ‘국문학’ 교수로 옮긴 것이다. 그가 경성제대와 관련 있는 저널에 발표한 글로서는 『신홍』 6호(1932.12)에 입학 동기이자 조선사학 전공의 윤용균의 죽음을 애도하며 쓴 『故尹瑛均君이생각해서』라는 글과 『조선어문학회보』 6권(1933.2)에 발표한 『方法論과 文學史』가 거의 마지막이었다. 이는 조운제와 김태준을 비롯한 조선어문학회 회원들이 꾸준히 두 저널 이외에 각종 매체를 통해 글을 발표해온 것과는 아주 대조적이다. 그에게 진남포상공학교 시절은 바로 ‘침묵’의 시간이나 다름없었다. 그것을 암시하는 글이 1934년 9월에 『동아일보』에 게재된다. 그 글은 『동아일보』가 3회에 걸친 기획으로 ‘향토’의 문인 3인에게 의뢰하여 연재한 『鄉土의 가을빛』 중 한 꼭지로 실린다. 1934년 9월 25일과 26일 양일에 걸쳐 발표된 이 글은 남포 들에서의 수상을 쓴 『사과밭 뚝을 거닐며』(상, 하)라는 제목이며, 그 외 23일에는 이무영이 군포의 장에서 『수수밭 머리의 月色』을 발표했고, 27일에는 김태오

36) C기자, 『梨花女專 나오는 꽃같은 新婦들, 梨花女子專門生の 學園生活』, 『삼천리』 제13권 제3호, 1941.3. 113-114쪽.

37) “朝鮮文學과 支那文學을 李泰俊씨가 담당하신 것, 국문학은 徐斗錫씨, 역사에 관한 것은 현재, 東京 가서서 言語學을 연구하시는 李熙昇씨가 담당한다는 것으로부터 현재, 이화여전 各科 선생들은 죄다 文科를 졸업하고 외지에 가서 연구하고 도라온 분들이라는 것과 女子文學士가 다섯 명이나 났다는 것.”이라고 이화여전의 자랑을 기자는 기사화한다.(앞의 글, 14쪽)

가 광주에서 『예城터의 仲秋明月』이라는 글을 발표했다.

“百年 못살 이八字에 北녘의南浦따에 살어리 살어리랏다. …중략…사슴이 짐때에올라서 一彈奚琴함이야 듣기조흐련만 時代가 바뀌혀 사오나 우니 靑山別曲도 들을바없어라.” 이렇게 청산별곡을 빗대어 써내려가다가 “내 비록 죽으랴이면”하고는 평남지방의 “葬道歌”를 인용한다. 가을들의 애상의 정서가 넘치는 이 글은 그 외에도 “눈물조차넋고 不直하야”라는 첨어에 이어지는 “天地開闢後에/애애승승달귀야”로 시작하는 노래와 “가가겨겨/가이없은 이내몸이”로 시작하는 노래를 삽입하여 그의 남포 생활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글의 형식면에서는 『신흥』이나 『조선어문학회보』에서 줄곧 써오던 에세이풍의 글을 덧붙인 민요채록이라는 점에서 연속성이 있다고 하겠다. 아직 더 살펴봐야 하겠지만 그후 3년여 동안은 그의 글이 발견되지 않는다. 그리고 1937년에 이화여전으로 옮긴 그는 경성제대의 동기 성낙서(조선사학), 고유섭(미학·미술사)과 함께 재직하는데, 이때 다시금 1937년 6월 25일자 『동아일보』를 통해 “무더운 여름 찌는듯한研究室에서 *終日도록 어느임금의實錄 어느文章의文集 하고 案頭에 잔뜩 싸허두고 겨우한句節拔萃가 되락마락 이러하기를 몇해이엇던고?”³⁸⁾ 라는 조선어문학회 시절이나 『신흥』 시절의 감회를 서두로 삼아 조운제의 『朝鮮詩歌史綱』을 리뷰한다.

그러한 조선어문학회 동인들과의 활동에 대한 감회가 서서히 사라질 즈음해서 그의 ‘국문학’ 전공자로서의 입장이 분명해지는데, 그것은 바로 1940년대 들어서 ‘동양론이 팽배해지면서이다. 만주사변 이후의 ‘신질서와 문학’을 권두언으로 내건 1940년 6월호의 『인문평론』은 ‘동양문학의 재반성’이라는 특집을 꾸린다. “藝術엔 國境이없다”는 표어로 문학이 ‘민족협화의 계기’로서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권두언의 내용처럼, 그

38) 인용문 중 *는 미해독 문자임을 가리킨다.(이하 동일)

기획 의도는 “軍事的, 政治的, 經濟的으로 東洋이 우리앞에登場한 이때 어찌 東洋文學에對한反省이없을소냐?”라는 것이었다. 이 때 동양문학은 국문학, 지나문학, 조선문학이라는 3분류법에 따르고, “各 部門을 擔當執筆하신 徐斗銖, 裴澹, 金台俊의諸氏가 斯界의 **者인것은 다시紹介할必要도 없을터”라고 필자진 소개를 덧붙였다.³⁹⁾ 서두수와 김태준은 물론 배호(지나문학, 9회 졸업)도 제국의 아카데미즘의 학문적 세례를 받은 경성제대 출신자이다. 이화여전 국문학 교수로 재직 중이던 서두수는 『일본문학의 특질』을 통해 자발적(?)으로 자기 학문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보다 앞서 『매일신보』에 기고한 『傳統과 默守』⁴⁰⁾라는 에세이에서도 일본의 전통 가면극 ‘노우’(能) 공연을 부민관에서 본 것을 회고하며 ‘한겨레’의 ‘전통과 묵수’를 논한 바도 있다.⁴¹⁾ 이 때 ‘한겨레’란 개별의 총합인 보편의 민족 내지는 인종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 하지만 『일본문학의 특질』에서 ‘이 나라’, ‘자기네’, ‘이 민족’, ‘일본 민족’ 등의 용어가 개별의 혹은 특정의 주어(주체)로 설정되면서도 그의 논의는 미묘한 균열을 보이는데, 그것이 바로 조선인=식민지민 ‘국문학자’가 ‘국문학’을 읽는 데 나타나는 균열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 나라’, ‘자기네’, ‘그들’, ‘이 민족’, ‘일본 민족’라는 용어가 쓰일 때는 그 상대항으로서의 ‘우리=조선 민족’이 전제되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써 국문학자와 국문학이라는 주체와 대상 사이의 제도적 일치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국문학과 조선인이라는 불일치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균열을 이 글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39) 『편집후기』, 『인문평론』 1940.6. 214쪽.

40) 서두수, 『傳統과 默守』, 『매일신보』, 1940. 4. 18.

41) “藝術의 表現者가 그 自力의 存在로서의 뜻은 어느 程度 송도리제 빼어버리고 한쪽은 틀 속에 싹기웠다가 그뒤엔 원통 그것을 버서나와가 아니라 그 틀을 서툴잔케 自己 것을 만들고 그 然後에 그 틀을 超絶하는 곳에 한짜 한겨레의 어떤 部門의 **이 그 獨自의 값을 지닌체로 남게저지는 有力한 一助力이 잇게 되지 안는가 녀여진다.”

이 글에서 서두수는 ‘국학’으로서의 국문학을 다루는 학자답게 고사기(古事記)와 일본서기(日本書紀), 그리고 만엽집(萬葉集)을 비롯한 각종 모노가타리(物語)류, 노가쿠(能樂), 조루리(淨瑠璃), 가부키(歌舞伎), 와카(和歌) 등을 거론하며 국문학의 통사적 견해를 피력한다. 그러면서 ‘의문학’과 ‘季문학’⁴²⁾을 중요한 일본문학의 특질로 삼고 ‘국민적 결합 형태’로서 ‘일본문화의 본래의 특성’ 즉 그 전통을 논하는데, 오사키 요시에(岡崎義惠), 오니시 요시노리(大西克禮), 하세가와 노제칸(長谷川如是閑)을 비롯해 자신의 스승인 다카기 이치노스케의 논의 등 동시대 국문학자들의 논의에 크게 기대고 있다. 그 중 “단일치 못하고 뒤섞인” ‘의문학’으로서 일본문학의 특성을 논하여 “민족간 투쟁이 없고 이에 결과하는 민족적 또는 정치적 지배 형태의 변동이 없어 이런 것에 源由하는 誇張, 威嚇, 煩瑣란 문화적 형태를 가져질 조건이 없던 일본 민족은 …… 인간적 생활에 根底한 矮小를 필연적으로 지니게”(9쪽)만들었고, 따라서 일본 문화는 형식= ‘외형’보다 내용=‘감성의 세련’에서 비롯된 ‘あはれ’, ‘幽玄’, ‘寂び’, ‘しをり’ 등으로 표현되는 감성적 우세를 보인다고 말한다.⁴³⁾ “言靈(ことだま)가 繁昌하지만 言擧(ことあげ)아니하는”(7쪽) 세계, 즉 “餘情과 隣置되는 內在的, 非合理的, 不可說的, 微細性的이며 깊이에서 오는 陰翳的 美”(12쪽)⁴⁴⁾를 강조하는데, 이는 에도(江戸)시대 모토오리 노리나가(本居宣長)

42) ‘季문학’은 “聯想의 無限界의 誘發”을 낳은 “만물을 季에 結聯시켜 종당은 俳句란 短詩는 全部 自然詩라 하여도 過言이 아닐될 만큼 된 自然의 힘!”(13쪽)을 강조하면서 일본문학의 특징 중 하나로 거론한다. 그가 ‘季문학’에 대해서 정의한 내용은 이 정도로 다루고, 이 글에서는 주로 ‘의문학’에 대한 논의만을 다룬다.

43) 서두수, 『일본문학의 특질』, 『인문평론』1940년 6월호, 11쪽-12쪽 참조. 이상의 일본어 단어는 일본문학의 미적 이념을 표현하는 것으로써 서두수는 그중에서도 특히 幽玄를 지칭하여 감성적 우세를 강조한다.

44) 이 인용문에서 “言靈(ことだま)가”라는 구절에서 조사가 ‘이’가 아니라 ‘가’로 쓰였다는 사실은 서두수가 ‘언령(言靈)’으로 읽지 않고 ‘ことだま’로 읽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言靈’이나 ‘言擧’와 같은 말을 굳이 번역해서 읽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가

이후의 ‘고쿠가쿠(國學)’에서 말하는 ‘日本心’에 대한 이해인 것이다. ‘국문학’ 연구자로서 言靈(ことだま)의 정신으로부터 규정받아야 했던 서두수는 ‘일어’ 혹은 ‘일본어’로 표상되는 ‘이 나라’, ‘자기네’, ‘그들’, ‘이 민족’, ‘일본 민족’ 즉 타자의 문화로 상대화하는 태도를 한편 지니고 있다. 그러한 균열은 『일본문학의 특징』에도 연장되어 나타나지만, 그는 이 글을 통해 조선문화(아니, 서두수 자신의 의식상 균열)가 말로 표현되기 이전의 言靈(ことだま)=日本心の 세계로 동일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일본문화에 대해 정의하면서 발견한다. 그것은 바로 일본이 “城砦(State)的이 아니었고 全國(Nation)的”이기 때문이며 “異質의 同時存在를 寬容하는 품성”(15쪽)을 지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나라’, ‘자기네’, ‘그들’, ‘이 민족’, ‘일본 민족’ 즉 타자의 문화로 일본문화를 상대화하는 태도와 동시에 이렇게 인식의 전환을 보이는 것은 이것이 1940년 6월이라는 ‘동양문학의 재반성’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뤄진 발언이라는 점과 분리될 수 없다. 다시 말해, 그는 이 글의 말미에서 ‘城砦(State)’와 ‘이질’의 조선문화와 ‘전국(Nation)’과 ‘동시존재의 관용’의 일본문화로 상대화하고 서로의 대소(大小)를 가르는 동시에 그 사이의 일방적인 일치(포섭)의 가능성을 인정함으로써 자신에게 존재했던 인식과 태도상의 균열을 해소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인식과 태도가 분명해지는 것은 “일본문학이라는 것에 대체로 담겨 있는 일본민족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를 다룬 『文學의 日本心』⁴⁵⁾라는 글에서이다. 이 글은 바쇼(芭蕉)나 모토오리(本居) 등이 지은 와카를 인용하면서 그 안에서 일본심을 발견하고 있다.⁴⁶⁾ 거기에서도 결론은 ‘おほや

쓴 다른 조선어 글에서도 이런 표현들은 자주 산견되는 데, 이런 식의 글쓰기에는 일본의 정신이나 심상을 굳이 번역할 이유가 없다는 태도와 번역이 불가능하다는 태도가 혼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점에 대한 논의는 차후로 미뤄두기로 한다.

45) 서두수, 『文學의 日本心』, 『朝光』, 1942.5.1.

46) 그는 일본심으로서 자연애=애국심, ‘幽玄’, ‘마고토(誠)’ 등을 들면서 그 안의 초합리성을 강조한다. 그러한 초합리성은 ‘천황에 대한 충’으로도 나타나며 그것은 “無條件

け'라는 일본의 국가 관념을 주장한다. 즉, 'おほやけ'라는 말이 본래 公의 의미이지만, 'おほ'(=大)+'야케'(=家) 즉 대가(大家)=큰집=宗家の 뜻을 가진 것이라고 피력한다. 또한 이것은 부부의 단위를 기준으로 하는 집과는 다른 대대손손의 의미로서 '이에(家)'에서 온 것으로 가장 '동양적 표현'이라 말한다. 이러한 'おほやけ'론은 『半島の光』(1942.7)에서 특집으로 꾸민 『特輯 日本美』 중 한편으로 실린 『日本の生活美』에서도 거듭된다. 환경/역사결정론에 입각한 일본의 '생활미'를 피력한 이 글에서도 "……훤신 올라간채로부터 우리 日本서는 縦으로 歴史와 横으로 환경이 매듭짓는 그곳 結び(むすび)에 모든 것이 優雅하게 자상하게 상냥하게 生す(むす)되는 것이다. 이러한 매듭은 반다시 中心에 歸一되나니 이 中心은 生活의 根元 되는 집에 두어 이 집은 큰 집 『おほやけ』인 皇室에 歸一해" 있다고 주장한다.⁴⁷⁾ 또한 그것을 좀더 분명하게 국문학자라는 발화의 위치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글은 『매일신보』에 6회에 걸쳐 연재된 『日本文學과 古典-訓練의 要請』⁴⁸⁾이다. 이 글에서 그는 세간의 識者들에게서 보이는 국문학 특히 고전에 대한 편협한 이해와 왜곡을 조롱조로 힐책한다. "원악 영특들 하시니 그럴상도십지만 언제어디서 *感으로 얻어오셨는지 허울조흔 日本精神을 휘두르고 八紘이 한집되는 精神을 大衆에게 보내이기를 아침법먹기보다 쉽게들 하시기 前に 古事記를 或은 日本書紀를 觀해 보십사"(3회차)⁴⁹⁾ 한다며 훈련을 요청한다. 심지어는 "事實上 戰爭下의 日本國民의

한 犧牲정신 말하자면 超合理的인 피(血)의 전통!"이라고 덧붙인다.

47) 서두수, 『日本の生活美』, 『半島の光』, 1942.7. 20쪽. 서두수의 이러한 주장은 조선 총독부가 1939년 11월 제령 제19호로 『조선민사령(朝鮮民事令)』을 개정하여 1940년 2월부터 이를 시행한 창씨개명의 취지와도 맞물린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서두수는 1942년 8월부터 『春秋』에 4회에 걸쳐서 메이지 시기의 소설, 시, 희곡에 관해 연재한 글 중 3회차(1941. 11)부터 창씨개명한 徐野斗銖라는 이름으로 글을 쓴다.

48) 서두수, 『日本文學과 古典-訓練의 要請』, 『매일신보』(1942, 3-4)에 6회에 걸쳐 연재한 글.

書”이자 “日本出版界以來 初有의 成績으로 實로 洛陽의 紙價를 暴騰케 했다”⁵⁰⁾는 히노 아시헤이(火野葦平)의 『麥と兵隊』에서도 고전(국문학)의 정신을 찾는다.⁵¹⁾ 즉, 결론에서 말하듯 “넓은 古典을 통해서 현실에 새로 히시는 이러한 힘 그것이 오히려 ***國民文學의 어떤한性格을 이루고말 지니 眞實로 古典愛는 이겨레의 가진***온갖企劃의 크나큰 原動力”(강조-인용자, 6회차)⁵²⁾이 되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 ‘이 겨레’가 앞서 『일본문학의 특질』에서의 ‘한겨레’와는 다른 맥락으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에게 이 글은 ‘국문학’ 전공자의 위치에서 ‘국문학’=고전의 유구성과 현재적 유의미성을 말하는 것은 물론 ‘국문학’=고전을 통해 일본민족과 조선민족이 혼일(混一)과 합일이 가능한, 혹은 차이의 무화(無化)가 가능한 존재라는 믿음을 보인 것인지 모른다. 그것은 바로 더욱 확연해지는 조선인으로서 국문학자인 자기 존재의 확인인 동시에 그 존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국적 상상력을 작동하여 욕망하는 목소리인 것이다.

IV. 결론을 대신하여

49) 위의 글, 3회차.

50) 백철, 『戰場文學一考』, 『인문평론』, 1939, 10, 48쪽.

51) 이 『麥と兵隊』는 『보리와 兵丁』이라는 제목으로 당시 총독부 검열관이었던 西村眞太郎가 번역하여 무료로 보급하였는데, 초판 “만이천부 발행 즉시 매진”되었다(『매일신보』, 1939. 7. 15)고 한다. 그 후 약 6개월 동안 34편이나 증판하면서(『보리와 兵丁』, 조선총독부, 1939, 251쪽) 조선 출판계에서는 유례없는 기록을 세웠다. 또 당시 전시 상황에 조용하는 일본 고전 작품을 소개한 글은 『國民文學』의 『명작연구』라는 코너에 실린 『防人のこころ』(1942.11)이 있다. 이 글에서 그는 고대의 징병 군인들이 가족 등과의 이별의 정을 노래한 萬葉集 수록 가요를 소개하면서 그 근처에 흐르는 ‘민족의 悲願’이니 ‘민족의 뜻(志)’을 분석하고 있다. 본문에서 지적했듯이 여기서 ‘비원’과 ‘뜻’의 주체-주어인 ‘민족’도 ‘겨레’와 마찬가지로 조선과 일본의 경계가 無化된 존재임을 확인할 수 있다.

52) 서두수, 『日本文學과 古典-訓練의 要請-』6회차(『매일신보』, 1942, 3-4).

서두수는 1942년 8월 이후 『春秋』에 메이지문학에 관한 평론을 4차례에 걸쳐 연재한다. 『國文學, 紙と講座(국문학, 종이와 강좌)』라는 연재에 수록된 이 글들은 국어=일본어로 작성되었다. 이미 1940년부터 국어와 조선어를 자유로이 구사하는 에세이스트로서의 면모를 많이 보여주기 시작했던 서두수였기에, 이 글들이 국어로 씌어졌다는 사실만은 그다지 생경한 일은 아니다. 하지만 앞서 인용했던 『日本の生活美』(1942.7.)와 『妄錄第一課』(1942.12.)가 이 글과 동시기에 발표된 글들이지만 『半島の光』나 『新時代』와 같이 국어와 조선어의 혼용으로 발간되던 잡지에 실렸으면서도 조선어로 쓰여졌던 것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즉, 당시 『춘추』가 『半島の光』과 『新時代』처럼 국어와 조선어의 혼용으로 편집된 이중언어로 공간되던 잡지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굳이 ‘국어’로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국문학’이라는 이미 규정된 사전 제약(요컨대 편집자의 요구 등)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⁵³⁾ 이 글에서 그는 메이지 유신에 따른 “天皇親政의 복고”가 “진실로의 회귀”라고 규정하면서 메이지문학에 담겨진 “피의 계보”⁵⁴⁾에 대해서 소설, 시, 희곡 등 각 장르에 대한 (소개 수준의) 분석을 통해 주장한다.⁵⁵⁾ 그리고 ‘우리나라(わが國)’라는 발화의 위치에서 ‘국

53) 이와 같은 경향은 잡지 『대동아』에 실은 글에서도 나타난다. 그는 『대동아』에 『時調のまこと心』(1), (1942. 3)를 일본어로 발표한다. 『삼천리』가 “반도인의 손에 의한 국어 종합잡지”의 출간을 기획하며 1942년 5월호부터 제호를 바꾸고 조선어와 일본어의 이중언어로 발간한 이 잡지는 “조선 내는 물론 만주, 내지, 중화민국 각지”에 지사와 판매소를 설치할 것을 계획했는데, 그런 점에서 그의 글은 편집자의 의도에 따라 각각 지역의 국어 독자를 대상으로 국어=일본어로 작성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이 글이 ‘시조의 진심’이라는 주제와 달리 조선 시가사의 전반을 다룬 (번역 수준의) 개괄적 내용(이 글은 시조 발생 전 단계에서 끝난다)의 글이라는 점도 조선인이면서 국문학자라는 그의 자기동일성에 비춰 자신의 역능을 어디에서 발휘해야 하는지를 편집자와 협의해서 쓴 글임을 말해 주는 것이다.

54) 서두수, 『序說 明治文學が生れる頃』, 『춘추』, 1942.8. 108쪽.

55) 그 외 연재된 글들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明治の小説』(1942.9), 『明治の詩歌』(1942.11), 『明治の劇文學』(1942.12).

문학자’로서 자기를 동일화하고, “문학에의 길과 조국에의 길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여겼다”는 메이지 문학자들에 자기를 동일화하는 방식으로 ‘국어’와 ‘국문학’의 이념을 실천하려 한다.

서두수는 식민지 대학(아카데미즘) 출신의 첫 ‘국문학도’로서 ‘국문학자’라는 자기동일성을 획득하면서 그 같은 실천을 수행할 수 있었다. 물론 그런 그의 실천이 좌절을 겪게 되는 것은 해방으로 인해서였다. 하지만 그 좌절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그리 단조롭지는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졸업 후 한국문학연구 1세대라고 불리는 조운제, 김재철, 이재욱, 이송녕, 김태준 등과 함께 『조선어문학회회보』나 『신흥』 등을 통해 조선어문학의 영역을 개척하는 데 동참하던 것의 의미, 그리고 당시 경성제대라는 아카데미즘의 정치적 세례를 받았다는 자부심이 만들어낸 자기동일성의 바탕 위에 자신의 학문적 정체성을 획득하기까지의 그만의 갈등 등, 단순화할 수 없는 그의 학문적 궤적은 이렇듯 국문학과 조선문학 사이에서의 방향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라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그러한 방향은 단순히 서두수 개인의 차원에서 연유된 문제가 아닐 것이다. 그의 스승 다카기 이치노스케가 조선이라는 식민지 상황에서 국문학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모순적이면서 어려운 문제인지를 보여주었듯이, 자기 학문의 場을 얻기 쉽지 않았던 식민지 상황과 언어본질주의적 피해의식의 강요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식민지민으로서 처한 환경 속에서 살았던 서두수를 생각해볼 때, 그 많은 한계 상황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 글을 통해 필자는 조선문학과 ‘국문학’이라는 제도의 사이를 오가며 자신의 학문적 동일성을 탐색하던 서두수의 모습을 확인하고, 그런 그가 식민지시기 조선문학이라는 범주와 정치성에 누구보다 민감할 수밖에 없었으며, 또 제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던 의식 때문에 ‘국문학’이라는 정치적 자장에 누구보다 깊이 감염된 실천을 행할 수밖에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선인 최초의 ‘국문학도’로 학문의 길에 들어서서 조선어문학회

회원으로, 그리고 ‘국어’ 교사(진남포상공학교)와 ‘국문학’ 교수(이화여전)로 자신의 학문적 동일성을 획득해왔던 그가, 해방 직후 국문학=한국문학 교수(연희전문과 서울대)로 바로 변신할 수 있었던 것은⁵⁶⁾ 한편으로는 식민지 시기 조선인이 ‘국문학’=일본문학을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거꾸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즉, 식민지 조선이라는 장소가 갖는 의미성 속에서 식민지민으로서 ‘국문학’=지배자의 국학을 한다는 학문적 주체와 대상의 불일치라는 모순의 구속으로부터 항시 자유롭지 못한 채 학문을 수행해야 하는 고통을 경험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도적 구속으로서의 전공자라는 자의식이 쉽게 떨쳐지는 것도 아니다.

서두수는 해방 직후 연희전문을 거쳐 서울대에서 국문학=한국문학 교수로 재직 중이던 1949년에 컬럼비아대학으로 유학을 떠난다.⁵⁷⁾ 그것은 ‘국문학’=일본문학 전공자라는 자기 구속과 조선이라는 장소가 갖는 의미성으로부터의 구속에서 자유로워지고자 했던 것이 아닐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로 인해 국적으로부터 자유로운 동아시아문학, (한일)비교문학이라는 탈출구를 찾았고, 또 조국의 해방으로부터 몇 년의 시간이 지나 뒤늦게 진정한 해방을 경험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⁵⁸⁾ 이런 의문들은 해방 후 서두수의 모습을 재구(再構)하는 과정을 통해 새롭게 논의되어갈 필자의 향후 과제로 남겨두겠다.

56) 해방 직후 연희전문으로 옮긴 서두수는 1945년부터 1948년까지 국문학 교수로서 교무처장을 역임한다. 그 당시 연희전문의 국문과 교수로서는 김윤경, 김선기, 윤웅선(경성제대 조선문학 전공, 1935년 입학)이 재직하였다.

57) 서두수의 스승 다카기 이치노스케는 그가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시애틀 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시점에 자신을 방문했다고 기억하고 있다. (『英利世夫と徐斗洙』, 『高木市之助全集』9권, 講談社, 1977. 195쪽.)

58) 『대한민국직원록』(1952년도)에 따르면 1952년에 서두수는 서울대 문리과 교수로 재직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성균관대학에는 1962년 12월에 6대 총장으로 부임하여 1963년 6월까지 재직했다.

【참고문헌】

1. 논문 및 기사

- 김영심, 「식민지조선에 있어서의 源氏物語-경성제국대학의 교육실태와 수용양상」, 『일본연구』, 2003. 12. 32쪽-33쪽.
- 김재철, 「朝鮮語化와 朝鮮語」, 『朝鮮語文學會報』5권, 1932.9. 7쪽.
- 김태준, 「朝鮮歌謠의 數노름」(『東光』 제29호, 1931. 12.
- 김태준, 「故蘆汀先生小傳」, 『노정기념집』, 한성도서주식회사, 1938. 6쪽.
- 『동아일보』, 1925. 1. 9. 사설.
- 『매일신보』, 1939. 7. 15.
- 박광현, 「경성제대와 『新興』」, 『한국문학연구』26집, 2003. 247쪽.
- 박광현, 「식민지 조선에 대한 ‘국문학’의 이식과 다카기 이치노스케(高木市之助)」, 『日本學報』제59집, 2004. 6.
- 박광현, 「다카하시 도오루와 경성제대 ‘조선문학’ 강좌-‘조선문학’ 연구자로서의 자기 동일화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문화』40, 2007. 12. 47쪽.
- 백철, 「戰場文學一考」, 『인문평론』, 1939, 10, 48쪽.
- 서두수, 「悲劇考察隻片」, 『新興』3호, 1930. 7. 113쪽.)
- 杜漱, 「他山錄-悲劇의脚色과性格-」, 『新興』4호, 1931. 1. 135쪽.
- 杜漱, 「他山錄(二)」, 『新興』5호, 1931. 7. 106쪽.
- 서두수, 「數노름」, 『朝鮮語文學會報』2권, 1931.10. 9쪽.
- 서두수, 「웃송」, 『朝鮮語文學會報』3권, 1932.2. 11쪽.
- 서두수, 「方法論과 文學史」, 『朝鮮語文學會報』6권, 1933.2. 41쪽.
- 서두수, 「傳統과 默守」, 『매일신보』, 1940. 4. 18.
- 서두수, 「일본문학의 특질」, 『인문평론』1940년 6월호, 11쪽-12쪽
- 서두수, 「文學의 日本心」, 『朝光』, 1942.5.1.
- 서두수, 「日本の 生活美」, 『半島の光』, 1942.7. 20쪽.
- 서두수, 「序說 明治文學が生れる頃」, 『춘추』, 1942.8. 108쪽.
- 서은주, 「일본문학의 언표화와 식민지 문학의 내면」, 『상허학보』, 2008. 2.
- C기자, 「梨花女專 나오는 꽃같은 新婦들, 梨花女子專門生の 學園生活」, 『삼천리』제 13권 제3호, 1941.3. 113쪽-114쪽.

이상우, 『한 식민지 국문학자가 마주친 ‘동양연구’의 길-김재철론-』 『인문연구』, 2007. 228쪽.

『편집후기』, 『인문평론』, 1940.6. 214쪽.

조선어문학회, 『本會事業一端』, 『朝鮮語文學會報』4권, 1932. 4. 23쪽.

趙潤濟, 『郷土芸術復興運動』, 『新興』2호, 1929. 12. 103쪽.

趙潤濟, 『嶺南女性과그文學』, 『新興』6호, 1931. 12. 72쪽.

2. 단행본

『대한민국직원록』(1952년도)

이승녕, 『大學街의 把守兵』, 민중서관, 1968. 25쪽.

이희승, 『一石 李熙昇全集9』, 서울대출판부, 2000, 53쪽.

火野葦平, 『보리와 兵丁』, 西村眞太郎 역, 조선총독부, 1939. 251쪽.

高木市之助, 『國文學五十年』, 岩波新書, 1967. 65쪽-71쪽.

高木市之助, 『尋常小學國語讀本』, 中公新書, 1976년. 29쪽-36쪽.

高木市之助, 『高木市之助全集1』, 講談社, 1977. 3쪽.

高木市之助, 『高木市之助全集9』, 講談社, 1977. 195쪽.

Abstract

Between Japanese and Chosun Literature as Institutions

- Focused on an Identity of Seo Doo-soo as a Chosun ‘Japanese Literature Scholar’ -

Park, Kwang-Hyoun

This study traces and examines the career of Seo Doo-soo who tried to seek his scholastic identity wavering between a Chosun Literature scholar and a Japanese Literature scholar. It is suggested that due to the limited consciousness into which a Japanese literary institution forced him, he couldn't help being involved in scholastic practices infected with political influence. He began his career as the first Chosun scholar studying on Japanese Literature and went on to be a member of Cho-sun-uh-mun-hak-hoe(the Association of Chosun Language & Literature) while groping for his own scholastic identity as both Japanese teacher and a Japanese Literature professor. In fact, this means that he as a member of a colonized people was involved in the 'state science(that is, imperialist ideology)' which was a crucial part of Japanese Literature as a institution. That explains why he suffered under the contradiction that a subject as a scholar was situated in conflict with a scholastic object. Also in turn, by researching his newly transformed identity as a Korean Literature professor after the Liberation, we can get to understand retroactively what it meant that a Chosun person studied Japanese Literature. Certainly, it was never easy for him to be free of his old identity as a Japanese Literature scholar. In 1949, Seo Doo-soo left for the U.S. to study in Columbia University after teaching Korean Literature in Yonhee Joenmun(now, Yonsei University) and Seoul University. Maybe, this choice to go abroad reflected his hope to get out of the double restraints as a former Japanese Literature major and as a scholar confined to Chosun as a place.

Key words : Kyungsung Imperial University, Seo Doo-soo, 'Japanese literature', Korean literature, academic identity

박광현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주소 : (410-716)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2동 506-205

전화번호 : (02)2260-3184

전자우편 : pkh@dongguk.edu

이 논문은 2009년 4월 30일 투고되어
2009년 6월 14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09년 6월 16일 게재 확정됨.